

# 진보정당 광주·전남 지방선거 성적표는?

〈통신당·정의당〉

## 광역의원, 신당 ‘굴리앗’에 맞선 ‘다윗’ 싸움될 듯

## 기초의원, 무공천에 후보 난립 ... 당선자 수 주목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 진보 정당의 6·4 광주·전남 지방의원 선거에서 어떤 성적을 낼지 주목된다.

양당은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통합 추진과 현직 프리미엄 등으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당선자를 배출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통합신당 시너지’에 소수야당 선거 영향은=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은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통합 추진이 광역의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와 달리 광역의원 후보는 공천하기로 함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굴리앗(통합신당)과 다윗(소수야당)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통합신당은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지지자는 물론이고, 부동표까지 흡수할 수 있어 소수야당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의당 강은미 광주시의원은 12일 “중간 지대에 있던 유권자들이 통합신당으로 쏠릴 수 있다”며 “광역의원 선거에서 소수야당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통합신당과 1대1 구도가 이뤄져 절대 불리하지 않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통합진보당 전주연 광주시의원은 “통합신당이 창당되면 통합진보당과 1대1 구도가 형성돼 밑바닥 지층이 확고한 통합진보당은 광역의원 선거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광주시의원은 “통합신당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 의회의 견제기능이 무력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통합진보당 소속 광주시의원은 1명, 전남도의원은 3명이다. 정의당 소속 광주시의원은 1명이고, 전남도의원은 없다.

◇‘통합신당 무공천’이 소수 야당엔 ‘유리’=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통합신당의 기초의원 무공천이 자당 후보들에게 일단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은미, 전주연 의원은 “통합신당 성향의 기초의원 후보가 난립할 것”이라며 통합진

보당과 정의당 소속 후보들이 부각할 기회가 커졌다고 낙관했다.

특히 정의당보다 ‘인적자원’이 풍부한 통합진보당은 기초의원 선거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전주연 의원은 “기초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2~3명을 뽑기 때문에 밑바닥 지지층이 견고한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투표율에서 통합진보당과 정의당은 당명이 멍기되지만, 통합신당 성향 후보들은 ‘무소속’이 될 수밖에 없다”며 “기초의원 선거에 관심이 없는 유권자들이 투표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도 중요한 관련 포인트”라고 말했다.

현재 통합진보당 소속 광주 기초의원은 14명, 전남 기초의원은 10여명이다. 정의당 소속 광주 기초의원은 4명, 전남 기초의원은 6명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알기쉬운 선거법 (2) 광주일보-광주선관위 공동캠페인

## 선거사무소, 해당 선거구 내에 1곳만 가능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는 선거운동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로 예비후보자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사무의 총괄기구이다.

◇1개의 선거사무소 설치 가능=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선거사무소를 고정된 장소·시설에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식점점객영업소(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등)·광중위생영업소(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등) 안에는 설치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당해 선거구 내에 설치할 수 있고, 정당의 사무소가 있는 때에는 그 사무소에 둘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마친 때에는 당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보기 때문에,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하기 위한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다.

◇간판·현관·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게시할 수 있는 간판·현관·현수막

등의 수량·규격 제한은 없지만,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게시할 수는 없다.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입구·외벽·담장에는 간판등 외에 홍보물을 게시할 수 없지만, 선거사무소 내부에 선거 구호·사진·포스터 등 인쇄물이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한이 없다.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간판·현관·현수막에 ‘후보자’라고 표시할 수는 없으나, 당해 예비후보자가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후보자’라 표시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에서 다른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제한·금지하는 다른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사무소 이외 다른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면 유사기관 해당=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외에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유사기관에 해당해 불법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선거펀드 조성 분 이용섭 등 3명 개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과 예비후보들이 투명한 선거자금 확보를 위해 잇따라 펀드를 개설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현재까지 선거 관련 펀드를 출시한 출마예정자나 예비후보는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윤봉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 등 3명이다.

이용섭 의원은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깨끗한 광주, 이용섭 혁신 펀드’를 출시한다.

이 의원은 광주시장 선거비용 한도액인 6억9300만원의 72% 수준인 5억원을 시민펀드로 조성하고 선거 이후 이를 되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봉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도 지난달 25일 ‘윤봉근 시민교육감 펀드’ 모집을 시작했고,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도 지난달 27일 ‘임우진의 희망 새자치 펀드’를 출시했다. 펀드 이자는 CD(양도성예금) 금리(2.65%) 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 금리(2.75%)수준이다. 다만, 이 의원은 이 보다 다소 높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금과 이자는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보전받는데 8월 3일 이후 펀드 참여자에게 지급된다.

이 같은 독특한 모금 방식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돈 선거의 관행을 깨고, 펀드에 가입한 유권자들이 자신이 투자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 지지자 확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광주지역 의원들이 12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곡 지정을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촉구하려고 정부 서 울청사 총리실을 방문하고 있다. 이날 총리실을 방문한 의원은 김동철·강기정·장병만·이용섭·임내현·박해자 의원 등 6명이다. /연합뉴스

##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 총리가 나서야”

### 민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 ... 정총리 “충분히 고려해 조치”

강기정·이용섭·임내현 의원 등 광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6명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으로 조속히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여야가 합의해 결의안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보존처가 곡본분열 등을 이유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면서 “총리가 주관해 기념곡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의원들이 전했다. 정

총리는 “오늘 면담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치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이에 강 의원 등은 “보존처가 부정적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 다시 보존처에 지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보존처는 총리실 소속의 기관이니 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면담 후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국회의 결의에 따라 총리가 결심하면 간단하게 끝날 사안인데도 역사와 국회를

무시하는 보존처의 처사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총리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면담 후 별도로 정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오늘 자리는 정부가 광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빼앗아갔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어떻게 언제 되돌려 줄 것인지와 보고하고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마치 총리는 바쁜 시간 속에서도 만나주고 대화에 응해주는 것을 고맙게라도 생각하라는 듯한 모습에서 참으로 유감이었다”고 지적한 뒤 상의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 “왜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 존속시켰나” 박주선

## “초과이익 공유제 등 지원대책 내놔야” 김승남

### ‘한·캐나다 FTA’ 비판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이 9년여의 협상 끝에 타결된 가운데 12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협상 내용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나타냈다.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 존속=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캐나다 FTA에서 국민안전과 우리 기업의 이중부담 등을 이유로 애초 폐지키로 했던 ‘수입차 안전기준 특례’를 존속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이 특례는 ‘상대국 원산지 차량이 자국 안전기준에 반영된 국제기준 및 미국기준을 충족한 경우 각각 자국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 제2조 규정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8월 이를 폐지하겠다고 입법예고했다.

이에 박 의원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를 위해 캐나다와의 FTA 협

상을 서둘러 타결하기를 원했던 우리 정부가 캐나다에 특례를 유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화했다”고 비판했다.

◇‘FTA초과이익공유제 실시해야’=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연이은 축산강국의 FTA체결로 국내 축산농가가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며 “정부에서 FTA로 순이익이 발생한 사업분야의 일부를 농축수산분야에 지원하는 FTA초과이익공유제 등의 실시 등 특단의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캐나다 FTA에서 농업분야의 가장 큰 관심대상인 쇠고기의 경우, 현행관세 40%에서 향후 1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완전철폐를 하는 것으로 합의해 수입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폐지조치의 경우에도 수입량이 미국에 이어 2위로 이번 FTA가 국내 양돈농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 신축원룸 매매전문(전대1분)

★전대상대1분(용봉지구코너)★  
신축 4층 121개 (상가 2칸, 4층주택)  
엘리베이터 시공, 대리석, 벽돌시공  
월수익 850만(연 1억)  
매가 12억(보1억 8천) 수익률 13%

★전대정문,후문1분(신축4층12개)★  
1층 상가, 4층주택, 월수익 400만 매가 6억 7천

★서구화정동신동아APT★  
(신축5층 27개 상가 85평)  
월수익 1400만 (보3억 8천) 매가 21억

★북구용봉동신축4층14개★  
(인집1개) 보2600 월470 용2억 매가 7억 5천

★신안동신축원룸(정문1분)★  
원룸14 안집(30평대)  
보2800 월450만 매가 8억 7천

★용봉동원룸,원투룸18★  
안집(50평대) 월수익 610만,매가 10억 5천

★나주이창동KTX역5분거리★  
원룸 18개 보 800만 월 540만 매가 5억

☎010-6670-9800  
062)952-5984

### 수익성상가 매매전문

수원지구상가매매  
- 한도빌딩 대면5차이파트 후문 비로앞 1층상가매매 18평(보2천 월130 용 145) 천매가 4억 ▶3억 5천(할인가)  
- 한솔빌딩 3천세대 모아APT입구 3층 상가 매매 85평 (보3천 월 200용 2억 5천) 천매가 4억 ▶3억 4천(할인가)  
- 엠스타빌딩 롯데마트 대로변3층 상가 매매 62평 (보3천 월 180만 용1억5천) 매 3억 ▶2억 5천(할인가)

서구 쌍촌동 빌라매매 (원룸형 오피스텔)  
- 원룸형 빌라 (11평) 보200 월 27만 매가4500 ▶3800만(할인가)  
- 원룸형 빌라 (12평) 보200 월 28만 매가4500 ▶3900만(할인가)  
- 투룸형 빌라 (14평) 보300 월 40만 매가5500만 ▶4800만(할인가)

수원 상가임대  
- 1층임대 18평 보3천 월130  
- 3층임대 45평 보2천 월110  
- 3층임대 20평 보1천 월 60  
- 3층임대 62평 보3천 월150

☎010-6832-9700  
010-2676-7037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감정가이하

- 금매 광주은행본점 부근 대인동 대로변 649㎡(210) 건물 522㎡(158)공시지가 11억6천 매도 11억
- 지하철 쌍촌역 4거리 대로변 준주거 377㎡(111) 병,의원, 시공,확일,자동차정비시설등 적합 7억 천
- 동명동 대지 318㎡(96)건평 228평 상가, 주택, 원룸등 18개 전세 1억2천천에 월5000선 9억6천
- 전남대앞 신안동 4거리 상업지 대지 446㎡(136) 4층건물 322평 은행 3억 매도 7억 2천
- 동구 대지 542㎡(164)건물 3968㎡(1200)18억 2천
- 동구 예식장 대지 1924㎡(582) 건물3287㎡(994) 요양병원등도 적합 감정 47억3천 매도 27억3천
- 남구청 부근 대로변 병원, 요양시설등 적합 대지 1461㎡(442)6층 건물 3656㎡(1015) 매도 36억3천

임대·투자

- 임대,쌍촌동용산그린아파트부근 투룸,쓰리룸 보증금 천만원에 월 30~40, 방크고 깨끗함
- 쌍촌동 원룸 투룸 건물 대지 222㎡(67) 건평 330㎡(100)지 하철 윤천역 2분거리 보증금 2천선 월 300선 4억5백만원
- 시골주택 담양군 봉산면 광주에서 10분거리 대지 665㎡(198)주택 162㎡(49)전원생활적합 9600만원
- 투자,매월등 매월저수지였 경관좋은 빌라, 다세대 적합 자연녹지 5485㎡(1659) 매도 31억5천
- 쌍촌동 구 등기소 부근 신축투룸 보증금 2000에 월 25선 임대 1층 기계 22평은 전체나 분할 임대가능 조건은 타협함
- 장성읍 그린벨트산 132397㎡(40050) 3억8천
- 쌍촌동 용산그린아파트 부근 2층 주거지 674㎡(316)다가 구, 다세대 적합 공시지가 4억3천 매도 4억5천
- 한라봉 농장 나주시 반남면 7187㎡(2178) 연 6천만원정도 수입 전원생활에도 좋을 3억8천5백만원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 희망공인중개사

고객님의성공을희망합니다

상가/건물

- ▶ 서구구 신축건물 매 72억
- ▶ 쌍촌동 광산대 대로변 3층건물 매매 12억
- ▶ 쌍촌동 5층건물 매 15억(보 1억7천 월656만원 포함)
- ▶ 회정동 교원공제부근 1층구분점포 225㎡ 매 12억(보1.3억, 월600만 유영프렌치치즈 입점)
- ▶ 전남대 정문 신축 4층원룸건물 480㎡( 원룸11 투룸3 주인세대) 매 9.5억(보3.3억 월477만)

대지/전답

- ▶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대지 750㎡ 매매 26억
- ▶ 서구 쌍촌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661㎡ 매매 14억
- ▶ 서구 쌍촌동 대지 5,000㎡ 32억(원룸단지적합)
- ▶ 남구 주월동 병원최적합 부지 2,290㎡ 매매54억
- ▶ 북구 신안동 대지 3,100㎡ 매매 36억
- ▶ 북구 문흥동 교도소부근 집중지 6,300㎡ 매매 50억
- ▶ 광산구 대산동 계획권지역 전 29,800㎡ 39억

기타

- ▶ 세하동 창고 1,590㎡(전234㎡) 매매 7.2억
- ▶ 영암 삼호중공업 인근 주유소 매 8억(용 5억)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 환영

서구 치평동 라인동산아파트 102동 앞 상가 109호  
☎ 010-5536-0382 062) 373-0382

###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면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 공장 금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 지 3,305㎡ 건물 1,300㎡  
◦ 사무실 1.2층  
◦ 높이 : 8m  
◦ 호이스트 3톤 2대  
◦ 전기 : 200kw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하동 자연녹지(2,100㎡) 일반 공업지역(2,400㎡) 허가됨, 매매가격18억원  
쌍촌동 대로점 대지(1,100㎡)건물(300㎡) 매매가격 17억원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